

# “영화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닮았네”

### MCU 영화 통해 멘토-멘티 관계 유지

### 수트 제작·음악·착지 포즈 등 오마주

영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에서 아이언맨을 떠올리는 다양한 장면들이 눈길을 끈다.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 (톰 홀랜드)는 MCU의 영화들을 통해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 지난 여정을 통해 서로의 성장을 견인하며 특별한 서사를 쌓아간 두 사람은 타노스와와의 최후의 전투를 그린 영화 ‘어벤저스: 엔드게임’에서 작별을 고했다.

이번 작품에서 자신의 수트를 직접 디자인한 피터 파커는 토니 스타크와 많은 부분이 닮았다.

유럽에서 펼쳐지는 빌런 ‘엘리멘탈’과의 최후의 대결을 앞두고 새로운

수트가 필요해진 피터 파커는 토니 스타크의 홀로그램 시스템을 이용해 수트 제작에 나선다.

피터 파커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디자인을 변경해 보며 공중에 구현된 홀로그램 수트에 손을 끼워 시연한다.

이런 피터 파커의 모습은 영화 ‘아이언맨’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수트를 제작하던 토니 스타크를 연상시킨다.

피터 파커가 수트를 디자인할 때 이를 지켜보던 토니 스타크의 오랜 친구 ‘해피 호건’ (존 패브로)이 들려주는 음악 또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전설적인 록밴드 ‘AC/DC’의 ‘블랙 인 블랙’이다. 최고 히어로의 탄생을 알린



영화 ‘아이언맨’의 첫 시퀀스에 삽입돼 MCU의 시작을 함께한 곡이다.

여기에 토니 스타크가 산물한 안경 ‘이디스’를 착용한 채 그 안에 탑재된 인공지능과 이야기를 나누는 피터 파커의 모습, 허공에서 날아와 착지하는 스파이더맨의 랜딩 포즈 또한 점차 아이언맨을 닮아간다.

한편, 개봉 8일째인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은 476만3805명이 관람했다.

뉴스스



## 방탄소년단, 오리콘 주간싱글차트 1위

### 해외가수 신기록

그들 ‘방탄소년단’(BTS)이 오리콘 주간 싱글 차트에서 해외가수 최고 기록을 세우며 정상에 올랐다.

9일 일본 오리콘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열 번째 싱글 ‘라이츠/ 보이 워드 러브’가 62만1000여 포인트로 오리콘 주간 싱글 차트(1~7일) 1위를 차지했다.

해외 가수 가운데 싱글 발매 첫 주에 60만 포인트를 돌파한 경우는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다. 또 방탄소년단은 이번 싱글로 전자 페이크 러브/ 에어플레이인 pt.2’가 세운 기록(45만4829포인트)을 넘기며 역

대 해외 가수 싱글 첫 주 판매 최고 기록을 자체 경신했다.

이와 함께 ‘라이츠/ 보이 워드 러브’는 발매 6일째 오리콘 일간 싱글 차트에서 2만2792포인트로 6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싱글에는 신곡 ‘라이츠’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서 각각 8위와 11위를 차지한 ‘작은 것들을 위한 시’와 ‘아이들’의 일본어 버전 등 총 3곡이 담겼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13, 14일 일본 시즈오카 스타디움 에코파에서 ‘러브 유어셀프 : 스피크 유어셀프’ 투어를 이어간다.

## 배성우·성동일, 사람으로 둔갑한 악마

### 공포영화 ‘변신’

배성우(47)와 성동일(52)이 주연한 영화 ‘변신’이 8월 개봉한다. 사람의 모습으로 변한 악마가 가족 안에 숨어 들며 벌어지는 기이하고 섬뜩한 사건을 그린 스릴러다.

악마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해 사람들간의 관계를 교란하는 과정을 공포스럽게 그려낼 예정이다.

으스스한 분위기의 집 앞에서 있는 배성우의 뒷모습이 호기심을 더한다. 배성우가 맡은 ‘중수’ 역은 기이하고 섬뜩한 일에 시달리는 형 ‘강구’

가족의 소식을 듣고 이들을 방문하는 구마사제다.

성동일은 ‘강구’로 분했다. 강구는 이사 온 뒤로 옆집 남자가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집에서도 기이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자 가족을 지키기 위해 본능에 눈을 뜨게 되는 인물이다. 성동일은 데뷔 이후 처음으로 공포 영화에 출연, 섬뜩한 연기변신을 선보인다.

기존의 호러물과 달리 ‘악마가 스스로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작품이다.

뉴스스

## 공효진·강하늘 “‘동백꽃 필 무렵’ 만나요”

### 로코퀸과 순정남, KBS 2TV 수목극서 만나

영화배우 공효진(39)과 강하늘(29)이 KBS 2TV 수목극 ‘동백꽃 필 무렵’에서 만난다. ‘동백’ (공효진)과 얽히는 세 남자의 로맨스다.

동백은 세상의 편견에 둘러싸여 있지만 깨끗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다. 제대로 사랑 받아 본 적 없으나 사랑을 베풀 줄 안다. 공효진은 ‘질투의 화신’ 이후 3년여만에 안방극장에 컴백,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줄 전망이다.

강하늘은 전역 후 첫 복귀작이다. 파출소 순경 ‘용식’으로 분한다. 우직하면서 대적적이고, 촌스럽지만 허블 찌르



는 섹시함도 있다. 매일 동백에게 “최고다” “장하다”며 애정을 퍼붓는다.

‘잠, 마이웨이’ (2017)의 임상준 작가와 ‘함부로 애틋하게’ (2016)의 차영훈 PD가 만든다. 9월 방송예정.

### 띠로 보는 오늘의 운세

- 쥐띠**  
서로가 깊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질 우려 있으니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겠다. 3, 5, 6월생 육신으로 말미암아 명예가 훼손될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
- 소띠**  
남의 것 챙겨주다가 내 것 잃는 줄 모른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 봉사정신도 좋지만 자신부터 정리해야 바람직하다. 오늘은 새로운 터전에 도전하는 날.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말고 성실하게 뜻을 지켜 가면 운은 저절로 열리겠다.
- 호랑이띠**  
좋은 일을 하고서도 칭찬을 못 들으니 덕이 없다. 친구 간에 금전 거래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책임을 저야할 우려 있다. 애정문제로 사적인 일에 끼여들면 관계가 열려이니 언행 조심하라. 사, 오, 모성세의 조언을 받아들일 때 힘이 되겠다.
- 토끼띠**  
호화롭게 사는 것보다는 따뜻한 정을 주는 것이 더 큰 선물이 될 것이다. 부부간 정이 두터워지면 부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마련. 1, 3, 5월생은 금전이 융통되니 추진하는 일 길하겠다. 7, 8, 9월생 노란색을 피하라. 약하게 보인다.
- 용띠**  
예기치 않던 걱정거리가 생길까 염려되니 조심 조심 오늘을 보내라. 2, 8, 11월생 모든 일에 겸손한 자세로 임하라. 부부는 일심동체이다. 어느 한 사람을 믿지 못하면 부부간 정은 멀어지는 법. 자기 수양에 힘쓰라.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 뱀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경솔하게 여자의 금전을 사용하면 구설이 따른다. 가정에도 불화가 일겠다. 그 돈을 갖지 못하면 더 큰 것 잃고 후회가 따르게 된다. 자신의 실수를 차리며 앞으로의 생활을 위한 부부 화합이 최선임을 알라.
- 말띠**  
나이가 많아 내 사업도 못하고 남의 일만 한다고 한탄 마라. 때가 되면 성취할 수 있다. 자영업은 아직 시기가 아니다. 5, 7, 9월생은 가정의 내조가 강해야 사업도 번창해 간다는 이치를 알라.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 건강을 체크해 볼이 좋을 듯.
- 양띠**  
시작은 좋았으나 진척이 부진하다. 자신감을 잃기에는 아직 이르다. 제아무리 절한다 해도 오해를 받는다. 운명으로 돌리지 말고 노력해서 성격을 바꾸어라. 구상하는 일 있으면 1, 5, 7월생 과감하게 도전해 추진한다면 대성할 수.
- 원숭이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후회하는 격이다. 1, 3, 7월생 한번 떠난 사람은 아무리 반성해도 다시 오지 않는다. 확고한 자신감으로 인내하며 전진해 사업부진을 타파하라. 미래의 웃음소리가 들려올 듯. 쥐, 말띠를 멀리함이 좋을 듯.
- 닭띠**  
서로가 사랑하면서 헤어졌다 다시 만난다는 것은 힘든 인연이다. 두 사람이 진실되게 합심해서 살 때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다. 금전적으로 지금은 힘이 들고 지쳐도 낙심은 금물. 나, 모, 사성세 힘을 내라. 풀이 한 뜻이 되리라.
- 개띠**  
직장 내 상하관계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엄청난 열정적으로 부부간에도 불화가 있겠다. 5, 9, 11월생은 침착하게 처신하고 인내심이 요구된다. 기, 사, 모성세 등 북쪽에서 금전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듯. 환색으로 단장할 것.
- 돼지띠**  
포부를 너무 크게 갖지 마라. 현 위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인정에 이끌려 손해를 볼 줄 알면서도 결단을 못 내리면 더 큰 손실. 공과 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손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 1, 4, 6월생 먼길 외출은 삼가라.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광주광역시**